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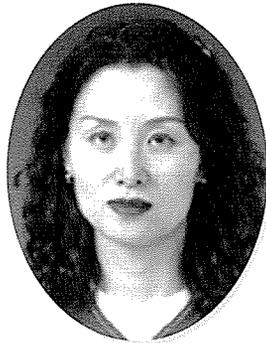
어 있으며, 원자력, 핵연료 주기, 폐기물 기술분야 대한 IAEA의 활동 및 지속적인 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평가 등에 대해 IAEA 사무총장에게 자문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에서 SAGNE 위원으로는 2000년 10월 설립 때부터 활동했던 장인

순 박사(현 원자력연구소 고문)가 제1기 임기(2000년~2003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후 장 박사가 제2기 임기(3년 '04~'06) 수행중 연구소장직을 퇴임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박창규 소장이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창규 소장의 SAGNE 위원직 선임은 국제원자력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원자력 국제외교의 장인 IAEA에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연구진 세계적 인명사전에 등재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종순)은 김종순 원장, 방사선영향연구팀의 남선영 박사가 미국 마르퀴스사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 메디신 앤 헬스케어'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06~2007)에 나란히 등재된다고 14일 밝혔다.

김종순 원장과 남선영 박사는 각각 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핵의학, 방사선의 인체영향연구 분야에서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남 박사는 분자·세포생물학 분야에서 방사선의 인체영향 연구로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방사선보건연구원 측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 동시에 두 명이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금번 등재는 우리 방사선보건연구원의 연구진들의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후즈후 메디신 앤 헬스케어'는 초판이 발행된 지 100년이 넘는 권위있는 인명사전으로 전세계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및 언론에서 이용하고 있다.



국내 동정

간암치료제 국제학회서 인정... '홀뮴-166' 美 임상암연구소에 소개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간암 치료제 '홀뮴-166'에 대한 임상 결과가 미국암연구학회(AACR) '임상암연구' 지 최신호에 소개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홀뮴-166은 방사성동위원소인 홀뮴과 '키토산'의 복합체로, 초음파로 환자의 간 부위를 살피면서 의료가 직접 종양에 주사하는 약제다. 지난 1998년 세브

란스병원과 원자력의학원, 동화약품 산학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간암 치료제다. 현재 '밀리간注'란 상품명으로 생산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간암클리닉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종양이 한 곳에만 생기고 그 크기가 3cm 이하인 환자 40명(남 27, 여 13)에게 홀뮴-166을 1회 주사한 뒤 평균 31개월동안 관찰한 결과, 31명에서 종양이 완전 괴사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인 12명 중 11명의 종양이 완전 괴사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간암 단계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광협 세브란스병원 간암클리닉 팀장은 "지난 95년도만 해도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간암 1기 환자는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면서 "많은 초기 간암 환자들에게 홀뮴-166은 시술 효

과 및 환자 편의성이 뛰어나 최선의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홀뮴-166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초기 간암은 물론 간기능이 약해 수술 치료가 어려운 간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국내 외에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홀뮴-166 연구진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7개 대학병원에서 진행중인 3상 임상시험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기존의 치료법과 효과를 비교, 치료 대상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진은 일부 환자에게서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골수세포 감소와 오심 등이 확인돼 이에 대한 예방 및 완화법을 추가로 연구중이다. 한편, 홀뮴-166은 1회 주사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0만원 선으로 다른 간암 치료술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내용출처 : 2006. 2. 19 국민일보

방사선연구원 국일현 원장 방사선융합기술 연구산업 육성계획 발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장 김영석 우석대학교 총장)는 10일 2006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2006년도 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06년도 전라북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각 분과협의회별 정책과제 발표 등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론하였다.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을 포함한 4대전력산업과 10대 지역연고산업 등에 총 3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총 3,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05년

2,721억원 대비 552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투자한다.

각 부문별로는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부분에 176억원이 증액된 622억원,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 부문에 280억원 증액된 498억원, 전략산업 부문에 1,458억원, 지역기반확충에 503억원 등을 투자한다.

이날 미래성장산업분과에서 방사선융합기술 연구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국일현 정읍방사선연구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내용출처 : 2006. 2. 10 연합뉴스